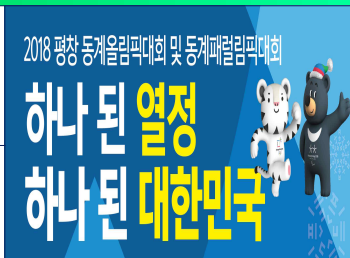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7. 1. 9.(화) 총 5매(본문5)	
담당 부서	공항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나웅진, 사무관 천홍식/허나윤, 주무관 권오준 • ☎ (044) 201-4328, 4337, 4333
보 도 일 시		2017년 1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사전 안내문자 발송·리무진·철도·셔틀버스 증편·연장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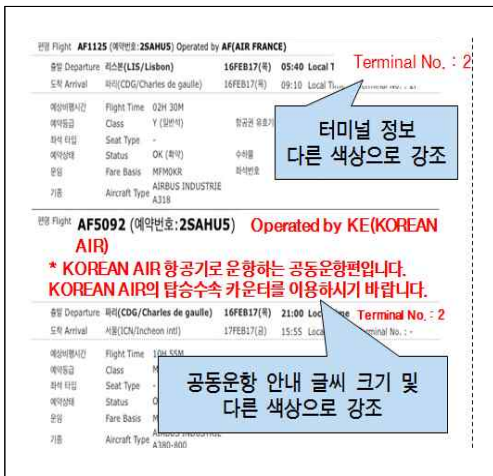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8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터미널 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접근교통 수단도 마련하였다.
- 국토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이 1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한 이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연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가장 중요한 제2 여객터미널 이용 항공사와 접근 방법을 시작으로, 편의시설 및 친환경 설계, 스마트 기술, 보안 검색 등 제2 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달라지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한다.

## 【 누가 제 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가 】

- 제1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서 5,40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하던 기존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의 1월 18일 개장으로 총 7,20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하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등 86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
  - 제2 여객터미널 입주 항공사는 '15년 상반기 터미널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대한항공으로 선정되었고, 대한항공과 환승 등 업무 밀접도가 높은 스카이팀 중 수송 분담률과 제2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4개 항공사로 결정되었다.
- 제2 여객터미널은 1월 18일에 공식 개장하며, 아침 7시 55분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된다.
- 앞으로 이용객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에 앞서, 항공기 운항 항공사에 따라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중 어느 터미널로 가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특히, 공동운항(코드쉐어)의 경우 탑승권 판매 항공사와 달리 실제 항공기 운항 항공사의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므로 항공사 안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 (공동운항) 2개의 항공사가 1개의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
- \* (이용 사례) ① “대한항공”으로 티켓을 구입하고, “델타,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 외(外) 외국국적항공사”가 운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 제1 여객터미널 이용  
② “외국국적항공사”로 티켓을 구입하고,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 제2 여객터미널 이용

○ 항공사는 항공권 예약 시 제공하는 e-티켓에 터미널 정보 표기를 강화하여 터미널 정보가 다른 색상(빨강)으로 강조되어 표기하고, 공동운항의 경우 색상(빨강) 뿐 아니라 글씨 크기도 크게 조정하여 이용객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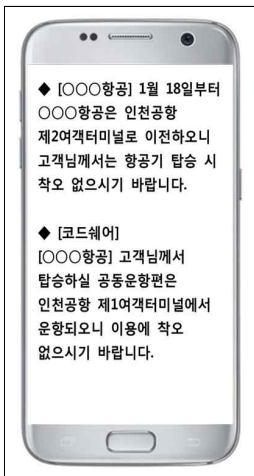
- 또한, 앞으로는 항공사 및 여행사가 출발 전 2회(1일 전, 3시간 전) 문자를 발송하여 이용터미널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글씨 크기 및 색상 변경



e-티켓 후면 터미널 안내도 게시



문자메시지

○ 만약, 터미널을 잘못 찾아왔더라도 두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직통 셔틀버스가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 터미널을 잘못 찾아온 여객을 위해 셔틀버스 정차장, 철도 승차장, 주차장 등 주요 지역에 안내요원(제1 여객터미널 66명, 제2 여객터미널 36명)이 배치되어 교통수단을 안내할 계획이다.

### 【 제 2여객터미널을 어떻게 갈 수 있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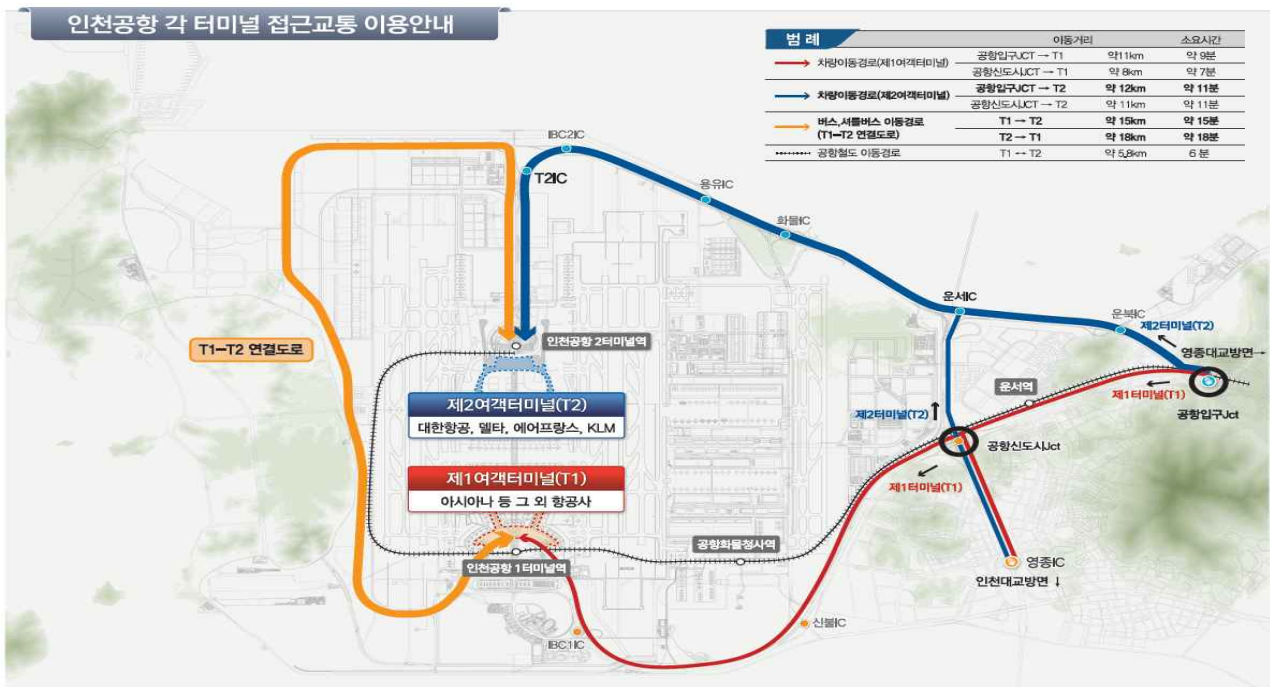
□ 제2 여객터미널의 이용객을 위하여 일반·리무진 버스, 철도, 셔틀 버스도 운행된다.

○ 버스는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현재 제1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제2 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 버스운송회사들은 증차를 통해 1월 15일부터 기존 운행 편수보다 101회 증가된 일일 2,658회를 운행하게 된다.
- 대한항공 계열의 KAL 리무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는 여객 혼선방지, 터미널별 여객비중 등을 고려하여 제1 여객터미널을 먼저 들른 후에 제2 여객터미널로 운행한다.
- 현재 제1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공항철도와 KTX는 1월 13일부터 제2 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는 약 6km 길이로 약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터미널 접근 시 방송되는 안내방송과 차량 내부에 부착된 터미널별 항공사 배치도를 참고하여, 하차 장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전용셔틀버스 노선 신설 등 총 5개 셔틀버스 노선(현재 3개 노선)이 1월 13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전용셔틀버스 노선은 5분 간격으로 무료로 운행되며 이동 소요시간은 15~18분이다.
- 제2 여객터미널에는 “제2 교통센터”가 설치되어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제2 교통센터는 리무진 버스, 공항철도 및 KTX를 모두 한 곳에서 탑승할 수 있는 복합교통시설로서, 지하 2층에는 철도 승강장, 지하 1층에는 버스터미널이 조성되었다.
-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입국장을 나와 바로 한층 아래에 있는 제2 교통센터로 60m로 이동하면 리무진버스 및 철도를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실내에서 대기하며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표를 구매하고, 실시간 버스 정보(결행, 지연 등)를 대형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공항과 유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길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내비게이션 사업자와도 협의를 완료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휴기간 등에 인천공항에서 발생했던 혼잡은 이번 제2 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터미널 분리 운영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 혼선이 우려된다”고 하며,
  -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터미널을 사전 안내하고, 접근교통망도 확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공항 이용객도 공항을 이용하기 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천홍식 사무관(☎ 044-201-43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